

'아이템' 주지훈의 힘, 신선한 판타지 그렸다



'아이템'이 독특한 소재와 전개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주지훈의 존재감은 다소 늘어지는 전개도 있게 하는 힘을 발휘했다. 11일 밤 첫 방송된 MBC 새 월화 드라마 '아이템' (극본 정지도·연출 김성욱)에서는 신비한 힘을 담고 있

는 '아이템'의 존재를 알게 된 검사 강곤(주지훈)과 '아이템'을 도둑 맞고 분노하는 소시오패스 조세황(김강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이템'은 검사 강곤과 프로파일러 신소영(진세연)이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아이템'을 차지하려는 인간들의 욕망 속에 숨겨진 음모와 비

밀을 파헤치는 판타지 블록버스터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동명의 웹툰이 원작으로, 드라마 '구해줘'를 쓴 정지도 작가와 '굿바이 미스터 블랙' 공동 연출, 단막극 '하우스, 메이트'를 연출한 김성욱 PD가 연출을 맡았다. 이날 방송은 강곤의 강렬한 꿈으

독특한 소재와 전개로 이목 끌어

로 시작했다. 꿈속에서 힘을 증폭시켜주는 팔찌를 착용한 강곤은 폭주하는 열차를 막아야 했다. 같은 시각 근처 건물에서는 의문의 여인이 옥상에서 떨어져 내리는 기괴한 꿈이었다.

강곤은 지방 근무를 마무리 짓고 서울로 돌아갈 날을 앞둔 검사였다. 사고로 죽은 형 부부의 딸인 다인(신린아)을 친딸처럼 키우며 단 둘이 살았다. 서울로 돌아가기 직전, 강곤은 길을 걷던 중 우연히 고대수(이정현)에게 폭행을 당한 여인을 발견하고 사건에 끼여들었다. 고대수는 강곤이 꿈속에서 보았던 팔찌를 착용한 채 테이블을 부수고 맥주 병을 손끝만으로도 터트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강곤은 그의 팔찌를 끊어내고 몸싸움을 펼쳤지만, 고대수는 싸움 도중 창문 밖으로 떨어져 팔찌와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이 팔찌를 바닷가에서 놀던 다인이 발견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화원그룹 회장 조세황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카메라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치던 그는 카메라를 등지자마자 피도 눈물도 없는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자택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보관해 오던 '아이템' 중 하나인 팔찌가 사라졌음을 알고 격분했고 팔찌의 소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아이템'인 풀라이드 사진기를 이용했다. 풀라이드에는 팔찌를 주운 다인의 모습이 인화돼 강곤과 조세황의 대립이 예고됐다.

프로파일러 신소영의 활약도 한창이었다. 신소영은 희망나루재단 이사장 납탈증 실종 사건 수사에 매진했다. 신소영이 혈안이 돼 수사를 영망으로 하는 선임 대신 증거를 분석하며 사건의 본질에 접근했고,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별장에서 병을 손끝만으로도 터트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강곤은 그의 팔찌를 끊어내고 몸싸움을 펼쳤지만, 고대수는 싸움 도중 창문 밖으로 떨어져 팔찌와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이 팔찌를 바닷가에서 놀던 다인이 발견했다.

한편 소독 없이 서울로 향한 강곤은 고대수의 주소를 받아 그의 정체를 추적하려 했다. 강곤은 다인을 데리고 새 아파트에 도착했고, 이삿짐을 들이던 날 아파트 입구에서 신소영과 마주했다. 그 순간 강곤은 신소영이 자신의 꿈 속에서 옥상 속 추락하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떨어지는 화분으로부터 신소영을 피했다. 강렬한 첫 만남이었다.

'아이템'은 첫 방송부터 화려한 CG를 심분 활용하며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자아냈다. 괴력을 지어내는 팔찌, 옛가리처럼 구부러지는 첩보팔과 열차 등 현실적인 VFX 효과가 이질감 없이 실사 영상에 녹아들어 '아이템'이 지닌 초능력을 실감 나게 그렸다. 첫 회이기에 등장인물의 전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다소 늘어지는 했지만, 배우들의 매력에 이를 상쇄했다.

무엇보다도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주지훈이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작품을 이끌었다. 위협감이 넘치는 '꿀통' 검사부터 형 부부를 사고로 잃고 오열하는 모습, 조카를 딸처럼 소중히 여기는 부상에까지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펼쳤다. 이정현과 합을 맞춘 액션신도 돋보였다. 김강우는 오묘한 소시오패스 연기를 펼쳤다.

어린 시절 학대 받은 과거사를 떠올리며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섬뚱하게 바라보는 모습, '아이템'이 없어진 것을 알고 분노하며 부하의 목을 조르는 장면 등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진세연 역시 프로파일러로서 사건을 추리해나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연기하며 합작점을 받았다. 이들이 자아낸 앙상블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자아낸다.

'극한직업' 흥행 폭주...1300만 명 돌파



영화 '극한직업'이 누적관객 수 1300만 명을 돌파했다.

12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박스오피스 1위는 21만 4344명의 관객을 동원한 '극한직업'으로 누적 관객 수는 1306만 264명이 됐다.

'극한직업'은 고반장(류승룡)이 이끄는 마포서 마약반이 팀 해체 위기에 내몰리는 가운데 마약반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조직 아지트 코앞에서 치킨집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치킨집이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스오피스 2위는 6만 5986명의 관객을 동원한 '알리타: 배틀 엔젤'이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132만 2287명이다. '알리타: 배틀 엔젤'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즈)은 20세기 기억을 잃은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1990년대 연재된 키시로 유키토의 SF 사이버펍크 장르의 만화 '총몽'을 원작으로 했다.

3위는 한 계단 상승한 '뽀빠이'가 차지했다. 2만 9617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누적 관객 수는 176만 1813명이 됐다. '뽀빠이'는 카레이서 출신으로 공룡도에서 광고 넘치는 스피드를 즐기는 재벌(조정석)을 쫓는 뽀빠이 전담반의 이야기를 담았다.

4위는 2만 13345명을 동원한 '드래곤 길들이기3'으로 120만 4393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했다.

'드래곤 길들이기3'은 바이킹 족장으로 거듭난 히잡과 그의 영리한 친구 투슬리가 누구도 찾지 못했던 드래곤의 파라다이스 히든월드를 찾아 떠나는 마지막 모험을 담은 스포터클 액션 어드벤처물이다.

5위는 3455명을 동원한 '극장판 헬로카봇: 옴파로스 섬의 비밀'로 누적 관객 수는 52만 6730명이 됐다. '극장판 헬로카봇: 옴파로스 섬의 비밀'은 따뜻한 남태평양으로 휴가를 떠난 차탄 가족과 친구들이 외딴 섬에 표류하며 외계로봇들의 공격을 받아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6위는 2764명을 동원한 '레고 무비2'로 누적관객수는 7만 8794명이다. '레고 무비2'는 레고 세계의 운명을 걸고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린 영화다.

7위는 두계단 상승한 '발모이'로 2627명 동원, 누적 관객 수는 285만 1378명이다. '발모이'는 우리말 사 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막눈 판수(유혜진)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을 만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까지 모으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8위는 2292명을 동원한 '가버나움'이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9만 79명이다.

'가버나움'은 출생기록조차 없이 살아온 (어저변) 12살 소년 자인이 부모를 고소하고 온 세상의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9위는 1929명을 동원한 '그린북'으로 누적 관객 수는 27만 9383명이다. 실화를 토대로 한 '그린북'은 언제 어디서든 바른 생활하는 완벽 한 천재 뮤지션 돈 셸리와 다혈질 운전사 토니가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떠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다.

10위는 1196명을 동원한 '콜드워'로 누적 관객 수는 11284명이다.

김종민X경리, '무작정 현장취재' 캐스팅



또 하나의 극강 예능 케미가 탄생할 예정이다.

코요태 김종민과 가수 경리, 개그맨 정성호가 히스토리 채널의 신규 디지털 오리지널 프로그램 '무작정 현장취재'에 캐스팅됐다.

히스토리 채널은 '무작정 현장취재' 제작을 확정하고 김종민과 경리의 색다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

했다. '무작정 현장취재'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파헤치는 지식 엔터소로 히스토리 채널이 특유의 팩트 체크 능력을 살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을 취재 컨셉의 예능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김종민과 경리는 취재 수첩을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진지함을 뽐낸다. 이들이 이제껏 예능에서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과 함께 극강의 케미를 예고해 '무작정 현장취재'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는다.

김종민은 히스토리 채널의 웹예능 '뇌피셜'에 출연해 단독 MC에

도전, 특유의 예능감을 발휘하며 웹예능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았다. 오랫동안 출연해 연예대상까지 거머쥐게 만든 작품인 '박2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애의 맛', '나의 영어사춘기' 등에 출연하며 예능대세로서 확실한 자리매김 중이다.

경리는 걸그룹 나인뮤지스 리더 보컬로 시작해 솔로가수로 홀로서기에도 도전, 독보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걸크러쉬' 캐릭터로 남녀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신상 터는 녀석들', '아찔한 사돈 연살' 등에 출연하며 본격 예능 행보를 걸고 있다.

'무작정 현장취재'는 '뇌피셜', '방탄조각단' 등 히트 웹예능을 제작한 히스토리 채널의 새로운 디지털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3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美 빌보드, 태민 컴백 집중 조명 "독보적 브랜드"

'특급 에이스' 사이니 태민(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두 번째 미니앨범 'WANT'(원티드) 미국 유망 매체 빌보드의 주목을 받았다.

빌보드는 1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태민이 유니크하고 예술적인 스타일링과 드라마틱한 신스팝 트랙 'WANT'로 돌아왔다'며 태민의 컴백을 집중 조명해 글로벌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또한 이번 타이틀 곡 'WANT'에 대해서도 "리드미컬한 베이스

비트에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그루비한 멜로디는 태민의 관능적인 보컬이 그의 욕망을 전달하면 서로 듣는 이들이 그들 더 갈망하도록 돕는 부드러운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빌보드는 "태민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활동으로 솔로 가수로써 자신만의 예술적인 브랜드를 탐구해왔으며, 'WANT'는 태민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그의 색소열한 기량을 입증하도록 확장된 곡으

로 태민을 가장 성숙한 단계로 성장시켰다고 호평해, 태민의 '역대급 솔로 남자 가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더불어 지난 11일 공개된 태민의 두 번째 미니앨범 'WANT'는 발매되자마자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예스24, 핫트랙스 등 국내 각종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함은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계 29개 지역 1위,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태민의 막강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음력 1월 9일)



▶**소세** 감정 쌓아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서 관계나 보증을 조심할 것. 1, 5, 7월생 두 가지 길은 위험이 뒤따른다. 다, 오, 자, 천 성씨는 등, 남쪽이 길하다.



▶**세세**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생각 하는 자세 필요. 기, 오, 자, 표 성씨는 자기 욕심보다는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이루고 키워내라. 언행 조심 필요할 날.



▶**유세** 혼들리는 마음은 자기 자신만이 움직일 수 있는 법. 기, 오, 자, 천 성씨는 어떠한 유혹의 그림자가 따라 다니다 해도 물리쳐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훗날 웃으면서 옛이야기 할 때 온다. 3, 7, 8월생은 단순함은 억제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진세**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자존심 버리지 말고 대담하게 대처하라. 기, 다, 바, 오 성씨는 판단력을 겸비한다면 하는 일 크게 대성할 수 있다. 1, 2, 3월생은 검정색 피하고 푸른 색으로 단정할 것. 남, 서쪽에 웃음 있겠다.



▶**용세**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 펴고 일어나듯 방향에서 벗어나 포용력으로 받아들여라. 기, 사, 오 성씨는 더이상 남의 것은 손대지 말고 적으면 적은대로 내실을 다짐이 좋겠다. 때를 기다림이 좋을 듯.



▶**정세** 어중간한 태도, 분명하지 않은 처리 때문에 칭찬받을 수 없게 된다. 흑백을 분명히 구분짓는 게 좋겠다. 자신의 잘난 것만 생각했지 내 것 빼앗기는지 모르고 있구나. 가정의 울타리를 튼튼히 할 것.



▶**광세** 순간의 선택이 앞날 망칠까 염려된다. 자기 것 자기 가 간수할 줄 알아야. 닭, 범, 토끼, 말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여러 곳에 손을 대는 것보다 한 곳에 만 정성 다할 것. 2, 5, 9월생은 구설수 있을 수 있다.



▶**정세** 혼자만 생각하지 마라. 3, 5, 12월생은 부모와 친지가 반대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처신할 수 있다. 바, 오, 흥 성씨는 애정적으로 불안한 상태. 부모간에 사랑 대화로서 풀이감은 어렵지. 지나친 신경은 과민반응 일으키니 여유 가질 것.



▶**유세** 혼자 살고 싶어도 주변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는다. 음악, 연구, 예술, 미술계 등으로 재미 볼 수 있다. 3, 6, 12월생은 인과관계를 특별히 잘할 것. 남의 보증, 계약, 문서 관계로 재물까지 나갈 수 있을 듯. 오늘은 둘다라도 꼭 두들겨라.



▶**광세** 안된다고 단정하지 말라. 그동안 부린 것 있으니 얻을 것 또한 많다. 용기가 필요할 때. 1, 4, 5월생은 기, 다, 바, 천 성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에게 진심을 심어줘라. 지난 일 자주 생각하면 안된다.



▶**정세** 양보하면서 순리대로 처신해야 할 듯. 1, 4, 10월생은 병이 재발될 수 있다. 자, 오, 흥 성씨는 자신감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기, 바, 오 성씨는 새로운 자와 시간 약속 지킬 것. 나, 사, 천, 흥 성씨로 신경 쓰는 것. 맺고 끊는 길만 필요.



▶**정세**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기, 사, 오 성씨는 영물에는 뜻이 없고 재빨리만 신경 쓰다간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 기년생 미혼자는 고집을 버리고 자신을 발견한다. 이점포가 눈앞에 있으니 갈 곳 찾아라. 녹색계통은 피하는 게 길하다.